

불심 다지는 '사회의 목탁'

◇최근 방송언론인불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마곡사에서 열린 방송언론인 연수 모습.



고등인 활동이 다소 미약했던 방송언론인 불자들이 성지순례, 수련회를 통해 불자회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중앙일보 등 미장림 언론기관에 불자회가 창립될 것으로 보여 올 한해 방송언론인 불자들의 왕성한 신행 활동이 기대된다.

SBS법우회(회장 허원재)는 19일 전남지역 유명사찰을 순례하는 성지순례를 떠난다. 30여명이 참석할 이날 행사에서는 고창 선운사, 내소사, 수행도량인 월명암을 차례로 참배한다. 경향신문불자회(회장 강신철)도 26일 충남 청양 장곡사로 사찰순례법회를 떠난다. 회원 감소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향신문 불자회는 이번 순례법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회원들의 불교이해를 높이고 신심을 키우 조직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KBS불교연구회(회장 정종철)는 26~27일 천태종 본산인 구암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조석 예불, 절과 참선하는 법,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될 이날 성지순례에는 원주, 안동, 춘천 지역 방송국 불자들도 참석한다. 또한 6월 중순경 MBC, SBS법우회와 함께 방송3사 불교단체 회원 수련회를 개최한다. 방송분야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신심과 단결심을 고양하고

KBS·SBS·경향신문 사찰 성지 순례

중앙일보 6월 불자회창립...종단 연수도

방송미디어를 통한 언론인 불자들의 사명과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수련회는 수련 우수자 등의 사찰에서 1박 일일정으로 진행된다.

미장림 언론기관의 불자회 창립도 활발하다.

대전지역의 방송, 신문, 케이블TV, 잡지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대전불교언론인회(회장 김중완)는 25일 백제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지난달 18일 창립발기인

모임에서 장곡 공주 갑사 주지스님과 종심 연화사 주지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한 대전불교언론인회는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백제불교회관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사찰순례, 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일보불자회는 6월초 창립준비모임을 갖는다. 현재 백성기 영자신문 사업본부 마케팅팀장을 중심으로 불자파악에 나서는 한편 6월말 불자회 창립을 목표로 활발한 준비를 하



◇소림사 방장 영신스님은 소림사를 방문한 한국 불자들과 절의 응답을 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국사암 주지 월호 스님, 소림사 방장 영신 스님, 정혜사 주지 혜일 스님, 정혜사해진 스님

용문석굴 10만불상 장관

본사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성공리 마쳐

"소림사(少林寺)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달마동에서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크게 일으켰던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또 당나라 태종 이세민을 구출한 소림사 무승들도 유명해 주위에 무승학교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3일 중국 등봉(登封)에 위치한 소림사 집경실에서는 방장 영신(永信) 스님의 소림사 안내가 곁들

상을 보고 엄청난 규모에 탄성을 연발했다. 이어 방문한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白馬寺) 68년 건립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했다.

셋째날, 개봉(開封)시로 이동한 참배객들은 원·명나라 때의 공평로 사용되던 '용정'의 수려한 풍광과 건축 양식에 압도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청빈한 관리

어진 법문이 이어졌다. 현대불교신문사가 기획한 '중국 불교문화기행'에 동참

한 1백여명의 참배객들은 귀중하게 마련된 방장 스님과 조우에 감격하며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법문이 끝나자 전주 정혜사 주지 혜일 스님(보문종 총무원장)은 영신 스님에게 한중불교 발전을 위해 소림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둘째날, 삼국지의 무대로 유명한 낙양(洛陽)시를 방문한 참배객들은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 여기의 크고 작은 불상을 보고 엄청난 규모에 탄성을 연발했다. 이어 방문한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白馬寺) 68년 건립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했다.

셋째날, 개봉(開封)시로 이동한 참배객들은 원·명나라 때의 공평로 사용되던 '용정'의 수려한 풍광과 건축 양식에 압도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청빈한 관리

어진 법문이 이어졌다. 현대불교신문사가 기획한 '중국 불교문화기행'에 동참

한 1백여명의 참배객들은 귀중하게 마련된 방장 스님과 조우에 감격하며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법문이 끝나자 전주 정혜사 주지 혜일 스님(보문종 총무원장)은 영신 스님에게 한중불교 발전을 위해 소림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둘째날, 삼국지의 무대로 유명한 낙양(洛陽)시를 방문한 참배객들은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 여기의 크고 작은 불

상을 보고 엄청난 규모에 탄성을 연발했다. 이어 방문한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白馬寺) 68년 건립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했다.

셋째날, 개봉(開封)시로 이동한 참배객들은 원·명나라 때의 공평로 사용되던 '용정'의 수려한 풍광과 건축 양식에 압도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청빈한 관리

어진 법문이 이어졌다. 현대불교신문사가 기획한 '중국 불교문화기행'에 동참

한 1백여명의 참배객들은 귀중하게 마련된 방장 스님과 조우에 감격하며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법문이 끝나자 전주 정혜사 주지 혜일 스님(보문종 총무원장)은 영신 스님에게 한중불교 발전을 위해 소림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둘째날, 삼국지의 무대로 유명한 낙양(洛陽)시를 방문한 참배객들은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 여기의 크고 작은 불

상을 보고 엄청난 규모에 탄성을 연발했다. 이어 방문한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白馬寺) 68년 건립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했다.

셋째날, 개봉(開封)시로 이동한 참배객들은 원·명나라 때의 공평로 사용되던 '용정'의 수려한 풍광과 건축 양식에 압도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청빈한 관리

어진 법문이 이어졌다. 현대불교신문사가 기획한 '중국 불교문화기행'에 동참

한 1백여명의 참배객들은 귀중하게 마련된 방장 스님과 조우에 감격하며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법문이 끝나자 전주 정혜사 주지 혜일 스님(보문종 총무원장)은 영신 스님에게 한중불교 발전을 위해 소림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둘째날, 삼국지의 무대로 유명한 낙양(洛陽)시를 방문한 참배객들은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 여기의 크고 작은 불

상을 보고 엄청난 규모에 탄성을 연발했다. 이어 방문한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白馬寺) 68년 건립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했다.

셋째날, 개봉(開封)시로 이동한 참배객들은 원·명나라 때의 공평로 사용되던 '용정'의 수려한 풍광과 건축 양식에 압도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청빈한 관리

어진 법문이 이어졌다. 현대불교신문사가 기획한 '중국 불교문화기행'에 동참

한 1백여명의 참배객들은 귀중하게 마련된 방장 스님과 조우에 감격하며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법문이 끝나자 전주 정혜사 주지 혜일 스님(보문종 총무원장)은 영신 스님에게 한중불교 발전을 위해 소림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둘째날, 삼국지의 무대로 유명한 낙양(洛陽)시를 방문한 참배객들은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 여기의 크고 작은 불

상을 보고 엄청난 규모에 탄성을 연발했다. 이어 방문한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白馬寺) 68년 건립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했다.

정각선원 탄공스님 초청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김문희)는 2일 국회내 법당인 정각선원 개원 6주년을 맞아 전 문경 대승사 주지 탄공스님을 모시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권익현 전 국회정각회장, 함종환 김태근 박권홍 전의원을 비롯해 사부대중

우리 모임에선

60여명이 참석했다.

구로승무소 경로행사

구로승무사사무소법우회(회장 박창식)는 7일 구로지역 무의탁 어르신 60여명을 모시고 서산 수덕사를 참배, 덕산온천 온천욕 등 경로 위안행사를 펼쳤다.

부처님 오신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법우회원을 비롯해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와 간호사 등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다.

지하철법우회 노인잔치

서울지하철공사법우회(회장 민병환)는 8일 지하철 1호선 중로3구역에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떡 등 음식물을 공양했다. 또한 멜로디 연주 및 경품퀴즈, 어울림마당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석불문화원 불상강연

한국석불문화연구원(회장 이근휘)은 9일 삼정동 가족아카데미에서 5월 불교강좌를 개최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좌는 고려의 불상을 주제로 한국석불문화연구원 전 사무국장 유영렬씨가 강의했다.

미만의 여성불자녀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접수는 관문사 1층 중무소에서 받는다. 023460-5300

▲축구단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강남구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능인청소년 축구단원을 모집한다. 02571-2988

▲자원봉사자=경희의료원 불자회는 병원 안내 등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58-8113

인터넷 해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12:00-15:00 021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12:00-15:00 021722-4162

게시판

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0분 서울 불광산사에서 사찰음식 연구가 이어 영씨가 진행한다. 02747-8734

▲반야심경·천수경=조계사는 16일부터 3개월 과정 반야심경·천수경 강좌를 개최한다. 조계사 스님들이 강의하는 이번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하는 주간반과 오후 7시 야간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토요일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02720-1390

모집

▲관문사 합창단=천태종 관문사는 금강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50세

알림

▲은혜사 홈페이지 오픈=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는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주소는 http://www.eunhae-sa.org이다.

▲무료 한방서비스=자양사회복지관은 매월 첫째·둘째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광진구 내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뜸, 부항 등 무료 한방서비스를 실시한다. 02458-1664

강좌

▲전통 사찰음식=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22일부터 6개월 과정의 전통사찰음식 강좌를 실시한다. 강



◇전국경찰불교회 준비위는 4월28일 구암사에서 창립준비모임을 가졌다.

전국경찰불교회 만든다

내달 16일 창립법회

초대회장 김중겸씨

경찰청, 충남·부산 지방경찰청 불자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경찰불교회 창립 준비위는 4월 28일 대전 구암사에서 모임을 갖고 6월 16일 오후 5시 조계사에서 경승단 총재인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모시고 창립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김중겸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고, 임기용 대전북부경찰서 불자회 총무가 수석부회장에, 고형섭 부산지방경찰청 불자회장이 감사에, 박희영 경찰청 불자회

총무가 사무국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또한 연합사무소를 경찰청 본청에 두고 각 지방경찰청, 경찰학교를 지부로, 경찰서를 지회로 하는 전국 조직을 구성하고 사이버경찰청 내에 불교동호회를 등 록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정보교류를 강화키로 했다.

전국경찰불교회 창립으로 경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전국 250여개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승 활성화와 함께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의경에 대한 포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식 기자

일성의 7번째 직영콘도 190만원 + 등기 주인으로 모십니다!!



계약후 2박3일 10회 무료로 사용하세요

일성 경주보문콘도 창립회원 모집

● 창립 회원 가입시 혜택

- 지분보유로 등기제와 회원제만 분양
- 직영콘도의 사우나/수영장 평생무료 (카드)
- 평생동안 연회비 면제
- 계약과 동시에 전국 16곳 정회원 사용
- 전세세 90개국 3,300여채인 사용 가능
- 신용카드 장기 분할 가능(18개월)

● 경주분양가 및 평형

17평형	19평형	28평형	35평형
498만원	557만원	791만원	1026만원

창립회원 입금계좌번호	
입금	국민은행: 006-25-0018-714
계좌번호	농협: 053-01-239331
예금주	일성리조트(주)

회원가입문의 02)718-9372

일성콘도는 공평거래위원회가 제정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사용하는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일성콘도미니엄 LSUNG CONDOMINIUM



살아 일성 콘도 부곡 일성 콘도 지리산 일성 콘도 제주 일성 콘도 남한강 일성 콘도 우주 일성 콘도(공사중) 경주 일성 콘도(공사중) 흥성/일성 스키리조트 임지 콘도 체인 도교 콘도 체인 청평 콘도 체인 송주 콘도 체인 덕구 콘도 체인 대전 H 체인 경주 H 체인 이천 H 체인

■사업승인 경북관경91743-289 ■분양승인 경북관경91700109135